

닭 경쟁력 강화 사업추진

- '97농림사업시행지침, 농림부 축산경영과 -

농림부에서는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품질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양계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닭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가족농 중심의 양계 전업농을 중점 육성하며, 기반시설, 축사시설, 자동화 시설, 환경 제어시설 및 각종 기계기구 등을 종합지원하고, 정부지원이 사육수수 증가와 연결되지 않도록 증축보다는 시설개선 및 현대화에 우선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사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지원 대상은 닭 사육농가 또는 종계장, 부화장 경영자와 양계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축협, 자생적인 협업체 등이며 지원규모는 농가는 호당 35억원 이내(육계 3억원, 산란계 5억원)로 하며 법인은 자기자본의 2백%이내, 축협 및 공공기관은 자기자본의 4백% 이내로 하기로 하였으며 지원조건으로는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며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연리 5%이며 융자 70%이내, 자담이 30% 이상이다.

사업담당은 농림부는 축산경영과에서, 시·도에서는 도 축산과와 광역시 농정과(축산계)에서, 시·군·자치구는 축산과 또는 농산과(축산계)에서한다.

참고로 98년도 사업을 신청할

경우 전업농, 종계, 부화업에서는 양계업에 1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시·도지사에게 종계업, 부화업 등록이 되어 있고 생산실적이 있는 종계장, 부화장 경영자 등이 자격이 주어지며, 축협, 법인, 협업체 등에서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축협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등기를 한 법인과 양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5인이상 농가가 정관을 정하여 운영하는 협업체로서 1년이상 사업 실적이 있고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 구성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협업체가 해당된다.

축산물 가공업무 농림부로 일원화

행정쇄신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육류와 원유 등 축산물의 가공 및 유통·판매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환원키로 결정했다.

현재 축산물 관련업무는 농림부가 가족의 생산 도축과 원유의 생산 및 집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복지부는 육류의 가공·운송·판매와 시유 및 유제품의 생산·판매부문을 맡아 관리하는 등 이원화 되어 있다.

축산물 가공품 관리업무는 오랫동안 농림부에서 관장해오다 지난 84년 7월 복지부로 이관됐었다.

농림부와 축협중앙회, 본회 등은 그동안 가족의 생산에서부터 도축·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과정이 복지부로 나뉘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뿐만 아니라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속위주의 유통행정으로 인해 경쟁력제고에도 어려움이 많아 축산물 관련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농림부는 특히 농림부에 행정적인 권한이 없어 축산물 가공품개발과 유통구조개선, 유통종사자 교육, 가공·유통산업 육성정책 등을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많으며 축산물검사업무가 이원화돼 생산자와 사업자가 모두 적지 않은 불편을 겪는 데다 행정상의 낭비마저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등은 농업부에서 각각 축산물관련업무를 일괄 관장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이탈리아도 지난 93년과 94년에 농림식품부로 창구를 일원화했다.

이번 행정쇄신위원회 결정은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총리실 행정조정을 거쳐 법처에서 입법화 하게 된다.

닭 계열화사업 대상자 확정

농림부는 금년 닭 계열화사업 참여 대상자에 3개소를 확정하고 모두 40억8천9백만원의 지원키로 했다.

지난 2월 3일 농림부는 올해 닭 계열화사업 대상자에 축협중앙회, 경북 신미식품, 충남 청정농산 등 3개소를 최종 확정하고 각각 24억5천4백만원, 10억2천4백만원, 6억1천1백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계열화사업의 자금 지원조건은 생산자단체의 경우 5%이며 기타는 연리 8%로 공히 5년거치 10

년 균분상환이다. 가족계열화사업은 전문경영주체 중심의 생산, 가공, 유통의 통합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일정 소득을 보장받고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서 생산비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부가 지난 91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91년부터 96년까지 닭 계열화사업에 16개소를 선정하고 이에 모두 5백11억 7천4백만원을 투자했다.

음식물찌꺼기 사료화사업 본격 추진

- 농림부 내년까지 시험사업 30억원 지원 -

음식물찌꺼기를 닭, 돼지 등 가축의 사료로 만들어 축산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음식물찌꺼기 사료시험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이와 관련하여 음식물찌꺼기로 퇴비를 만들 때 적용하는 「비료공정규격」을 염분농도기준으로 개선해 염분농도가 낮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활용폭이 넓어지고 있다.

농림부가 추진키로한 음식물찌꺼기 활용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음식물찌꺼기를 가축사료로 만들어 공급하기 위한 시험사업에 모두 30억원이 지원된다.

올해와 내년에 각각 15억씩을 나누어 지원해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시험사업단지 1개소를 우선적으로 조성키로 하고 이달말까지 각 시·도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 사업계획서를 공동작성해서 신청하면 시·도지사는 계획서를 검토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대상자를 추천하며 농림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들 가운데 최종대상자를 오는 3월말까지 선정하게 된다.

농림부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험사업과 함께 퇴비화사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들 때 적용하는 비료공정규격을 염분농도기준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농업과학기술원의 협조를 얻어 3~5월중에 음식물쓰레기의 염분실태를 조사하는데 이어 6~9월 중에는 가축분 퇴비와 섞어 사용할 경우, 혼합비율 및 염분농도를 조사한 후 오는 10월 중에 비료공정규격을 개정,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의 염분농도와 악취를 최소화 하는 기술과 퇴비화를 촉진시키는 속성발효 기술 등을 개발키로 했다.

한편 농업과학기술원이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퇴비와 가축분 퇴비의 염도를 조사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퇴비가 2.35%로 0.64%에 불과한 가축분 퇴비의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 질병예방접종사업 확대

농림부는 주요가축질병 근절차원에서 기존의 돼지콜레라와 오제스키병외에 닭 뉴캐슬을 추가해 가축질병에 대한 완전박멸을 목표로 예방주사약을 지원하는 등 예방접종사업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닭 뉴캐슬의 경우 지난해까지 양계농가에서 자율방역에 의존했지만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백% 국비로 부화장에서 부화된 초생추에 대해 예방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등록된 부화장의 방역, 위생관리 상황을 해당 시도와 가축위생시험소 합동으로 확인 점검후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분무접종용 분무기와 차량 및 출입자의 차단과 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부화장을 우선하여 지원하게 된다.

또 시·군 공동방역사업 실시단에서 사업단 관할농가에 분양예정인 초생추에 접종하고자 신청한 부화장의 사업량을 우선하여 지원하게 된다.

접종은 부화장에서 부화된 초생추에 예방약품 분무접종후 입추농가에 운송되도록 예방약을 지원하고 입식농가에 대해서는 필히 추가 음수접종을 실시토록 지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림부 '97 육류중미생물검사요령 고시

농림부는 지난2월 13일 '97 육류중 미생물검사요령을 고시하고 개방화시대에 우리 축산업을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내산 육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검사기간은 고시일로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관할 도계장에서 검사한다.

검사시 일반세균수, 대장균수와 대장균 O-157 : H7, 살모넬라균 등 병원성세균을 검사한다.

시료는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관할 도계장에서 도계장별, 분기별, 품목별로 도계완료후 포장직전에 채취한다.

검사권장기준(단위:cfu/cm²)은 일반세균은 5백만개 이하, 대장균군은 1만개이하 살모넬라균은 음

성, O-157:H7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기준 초과시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은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요령에 의거 작업전·후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게 되며,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시설개수명령을 내리게 되고 권장기준치이내가 될 때까지 매월 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대장균 O-157:H7은 출하농가의 사육가축에 대한 분변검사 및 소독실시 등 특별 위생관리와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농림부 고시 제1997-11호)를 강화하며, 살모넬라균은 닭고기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시 오염원인(닭, 사료, 종계 등 검사실시)을 분석·제거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축산물작업장에 대하여도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태국 브로일러 수출 정체

태국의 브로일러 생산이 수출 수요저하 영향으로 96년도에 82만5천톤으로 전년대비 6% 증가에 불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태국은 94년은 전년대비 8%, 95년은 전년대비 11%증가 등 80년대 이후 평균 8%의 연간 생산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96년에 이어 97년에는 86만톤의 생산으로 전년대비 4% 증가에 불과 근래 최저의 신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산업의 근대화에 따른 축산업계의 취업인구의 유입감소, 타산업, 주택등에의 토지전환에 의한 가금생산용지의 감소, 사료생산량의 감소와 엄격한 수입규제에 따른 공급감소로 사료 가격상승, 생산비의 상승, 생산자 이익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국의 96년 추정 수출량은 전년대비 1백5%(8천톤)가 감

소한 16만5천톤, 97년은 31%(5천톤) 감소가 예측되고 있어 2년 연속 수출감소가 예상된다.

근래 수출 피크였던 92년 17만5천톤에 비하면 5년간 1만5천톤의 감소가 예상된다.

태국의 수출은 94년까지는 생산에서 소비를 뺀 잉여가 거의 전량 수출되었다.

95년 수출량은 수출여력으로 볼 수 있는 생산·소비의 차 18만3천톤을 1만톤 하회하였다.

96년도 수출량도 전년도와 같이 1만톤 하회할 전망이다.

그만큼 태국의 수출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수출력이 저하되는 것은 주요 수출선인 일본에서 중국과의 경합이 열세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고 수출선은 일본의 수출선을 개척하고 있으나 수출확대의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제6회 아시아 태평양 가금회의 및 전시회 열려

제6회 아시아 태평양 가금회의 및 전시회가 1998년 6월 4일(화)부터 7일(일)까지 3박4일동안 일본 나고야무역 산업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일본 가금학회, 아시아 태평양 연합 WPSA, 일본분과 WPSA의 주최로 열리게 될 이 행사는 1983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제1회로 개최된 이후 2~3년 마다 행사가 개최되었다.

1998년 일본에서는 새로운 이름으로 아시아 태평양 가금회의(APPC)가 "보다 나은 가금 생산"이라는 훌륭한 프로그램과 가금산업 토론회와 워크샵에 대한 가금학회가 열리게 된다.

첫 번째로 가금유전학, 부화, 번식 및 생리학, 두 번째로 가금사료, 영양 및 경영, 세 번째로 가금건강 및 질병, 네 번째로 가금생산과정 및 판매, 다섯 번째로

가금기술 및 응용, 여섯 번째로 가금 발전 및 환경보호, 마지막으로 다른 조류의 종류등 총 7개부분으로 나뉘어져 행사가 치러지게 된다.

회의는 과학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거의 이루어지게 되며, 7개부분 이외의 프로그램에서 공개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A4 용지 200자 내외로 작성해 APPC 사무국으로 보내면 된다.

또한 전시회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 31일까지 아래주소로 보내면 된다.

주소: 6th APPC Secretariat
c/o Congress Corporation
Hirokoji YMD Bldg., 1-20-25
Nishiki, Naka-ku, Nogoya
460, Japan

TEL: +81-52-222-1297

FAX :+81-52-789-4012

덴마크, 살모넬라 없는 닭 생산

덴마크 Danpo 가금회사에서 살모넬라가 없는 닭을 시장에 내놓았다.

'살모넬라 프리' 닭고기는 GPS로부터 부화 및 사육 처리시설까지 생산체인에 대한 스웨덴당국의 철저한 조사에 의해 인정되었다.

이닭의 인증을 위한 기술적 요구조건은 입추 브로일러중 95%가 살모넬라에 1%미만의 감염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

Danpo사의 1백여 회원들은 연간 5천만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은 생산과정에서 2가지 종류의 바퀴벌레들의 의해서 감염되고 있으며 또, 계사주위 및 잠겨있는 자동급이 시설 등에서 감염이 된다고 보고 있다.

Danp 사는 97년말까지 회원생산자 모두가 '살모넬라 프리' 닭고기를 생산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다른 3개 덴마크 가금회사들도 최대 5%까지의 감염수준을 인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조만간 Danpo사의 수준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가금육 수출 호조 지속

중국 가금육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냉동육 수출은 96년 1월-11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4% 많은 26만 8천톤으로 늘었다.

95년 전체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53.1% 늘어난데 비하면 증가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두자리수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으로 다른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브로일러를 중심으로 한 가금육 생산이 급증하면서 수출여력이 확대된데다 경제개방, 수출규제 완화 등에 따라 가금육 수출실적이 생산증가세를 앞질러 오고 있다.

금강종합식품(주) 일본으로 계정육 수출

금강종합식품(주)(유현종 대표)가 지난달 27일 일본으로 노계다리육 등의 계정육을 수출하였다.

금강은 이날 노계다리육(지육), 종계다리육(지육, 정육), 근위 등을 수출하였는데 노계 및 종계다리살 8천kg, 근위 7천kg 을 각각 선적하였으며 이로써 앞으로 계정육의 대일수출의 길을 열었다.

금강(충남 서산 소재)은 1989년 10월 설립된후 지금까지 도계 및 계정육, 분쇄육을 생산하여 롯데

햄, 남부햄, 에이스햄, (주)미원, (주)미원농장 및 군납업체에 납품하고 있는데 96년에는 70억여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현재 1일 도계수량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3만수가 되며 계정육은 1일 1만6천kg, 분쇄육은 1일 9천kg을 생산하고 있다. 종업원은 210명이며 현재 중국연수생 20명이 연수중에 있다.

한편 지난 93년에는 중국 산둥성에 햄, 소세지를 생산할 수 있

는 해외공장을 설립하였는데 연간 매출은 3백5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 지난해 오리고기 수입 급증

지난해에 오리고기 수입물량 급증으로 일정부분 국내 닭고기 시장을 잠식, 닭고기 산업 불황을 부채질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해 수입 오리고기 방출량이 크게 늘면서 바로 닭고기 공급과잉사태가 빚어진데다 수입 오리고기 값이 닭고기 도매값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닭고기 공급과잉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오리고기 수입량은 51만4천마리로(2kg 기준) 월평균 대비 30%가 증가한데 이어 10월에도 무려 45만9천마리가 수입되어 국내 냉동닭고기 비축물량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가격면에서 수입 오리고기의 경우 국내 유통가격이 kg당 2천원으로 나타나 수입 오리고기가 국내 닭고기보다 가격경쟁력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닭고기 시장 잠식이 용이했다.

미원마니커 국내품종(마니커)으로 전환

미원마니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국산 종계가 완전히 도태되는 내년 초까지 종계품종을 국내에서 개발된 자체 품종인 「마니커」로 바꿀 계획이다.

현재 미원마니커는 40만마리의 종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하이브로가 40%를 차지하는 것을 비롯 아바에이커, 로스 등이 40%를 점유, 보유 종계 가운데 약 80%가 외국산 품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원마니커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마니커 순종계(PL)와 원종계(GPS) 3만5천마리와 약 6만마리에 달하는 종계(PS)를 활

용,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이들 외국산 종계를 마니커품종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종계 품종을 완전히 마니커로 일원화 시켜 본격적으로 국산 품종의 병아리를 생산해 낸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종계의 거의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하다시피 하고 있는 국내 닭고기 업계에 신선한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국내 닭고기 유통시장이 외국 의 대형종 보다는 규격이 상대적으로 작아 소비자 뿐만 아니라 생산농가에도 이점이 많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닭고기 소비 촉진 홍보

본회의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이의 효과가 서서히 거양됨에 따라 업계에서 '97닭고기 소비촉진 홍보비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 97. 2. 28까지 본회에 보내주신 '97 홍보비는 다음과 같다.

(주)하림(대표 김홍국)	16,560,000원
전북양계육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이기동)	1,000,000원
(주)중원농장(대표 배선채)	1,000,000원
(주)신기(대표 이상수)	1,000,000원
계	19,560,000원

화이트 미트의 시대!

KS닭고기회사

하림이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회사
(주)하림
HALIN & CO., LTD.

계사 보온에 가스사용 늘어

- 대형화에 따른 안전관리로 저장탱크 설치 바람직해 -

유류가격의 자율화 이후 기름값이 계속 상승되면서 육계농가의 가스 육추기 보급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소형 저장탱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육계사육시 보온을 위해 난로사용이 과거 연탄에서 등유 또는 경유사용으로 전환된 후 불완전연소로 인한 황화합물, 질소화합물 등 유독성 가스 발생뿐만 아니라, 계사내 산소결핍 현상으로 사육환경이 나빠 겨울철 호흡기성 질병 감염과 설치비가 저렴한데 비해 수명이 짧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열효율이 낮아 연료비가 많이 들어 LPG 등을 이용한 가스육추기 보급이 보편화 되고 있다.

대부분의 농가가 50kg 용기 등 여러개를 연결해 사용하는 용기집합식으로 설치 운용함에 따라 보관시설, 배관의 문제도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다 일부 육추기의 조립 불량으로 화재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가스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유류에 비해 가스사용시 15~

20%의 연료비가 절약되는데다 육계농가 사육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3만수이상의 농가에서는 계사환경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농장 가스 소형 저장탱크 설치가 바람직하다.

현재 가스안전관리법이 까다로와 농가에 대한 배려가 미약하지만 그 동안 관련업계에서 안전관리사 문제 해결(농업용은 관리자 4박 5일 교육)을 위해 노력했고, 농업용 저장시설 허가기준 상향조절(3톤에서 5톤으로), 소형저장시설의 활성화, 농업용 가스 면세화, 시설비 절감 방안 등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어 많은 기대가 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가스 저장탱크 설치가 용이해 농장에 보편적으로 저장시설을 갖추고 싼 값에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지보온 보다는 계사내 전체 온도조절을 위해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 받아 계사내 수분결핍에 따른 습도 조절이 용이하고 여름철에는 송풍기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위생닭고기 유통 차별화 필요

소비자들의 육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대형 백화점 슈퍼마켓 판매 육류에 대한 자체 검사가 강화되고 있다.

닭고기의 경우 일부 백화점에서 대장균 등 병원성 세균에 대한 검사 결과 규정치이상 검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 비위생 닭고기의 납품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도계과정에서 위생닭고기 생산은 물론 운반 유통중 주의가 요망된다.

현재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납품이 주로 유통상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유통현실에, 많은 비용을 들여 철저한 위생관리로 위생닭고기를 생산하는 메이커들이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유통이 개선되어야 하며 저가격위주의 대형수퍼 납품 관행이 속히 개선되어 품질 위주의 경쟁이 요구된다.

백화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한 닭고기 공급을 위하여 위생닭고기 생산업체에 대한 실태 파악으로 문제가 있는 납품상인들을 배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일반 제품과 위생닭고기의 차별화가 시급한 현실이다.

개방식 육계사, 종아점등으로 생산성향상

육계를 사육하는데 있어 하루종일 불을 밝혀주는 종아점등방법이 간헐점등과 점증점등보다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축산기술연구소 축산기술부가 발표한 개방계사의 점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종아점등방법이 증체를 폐사율, 사료요구율에서 간헐과 점증점등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육계 초생추를 3개의 점등조건(종아, 간헐, 점증)에서 8주간 사육하면서 체중, 사료요구율, 폐사 및 SDS발생률을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점등방법은 낮 시간대에는 모두 자연광조건에서 사육하고 밤 시간대에는 인공점등시간과 방법을 시험구별로 다르게 조절했다는 것이다.

종아구는 24시간내내 밝게, 간헐구는 23시간→18시간, 점증구는 23시간→자연일조시간→18시간→23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조절했는데 인공점등시간은 각각 599.2시간 288.2시간 392.1시간에 걸쳐 시험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시험계의 전기(4주령)

체중은 종아구 1,132g에 비해 간헐구는 1,086g, 점증구는 1,083g으로 낮아지나 후기(8주령)체중은 처리구간에 큰 차이가 없는 보상성장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사료요구율은 점증구가 2.12, 종아구 2.38, 간헐구가 2.59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폐사율과 SDS발생은 종아구→간헐구→점증구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2월 생산책임자회의 해마로에서 주최

본회 97년 1차 생산책임자회의가 (주)TS해마로식품 주관으로 지난 2월 21일(금)에 동사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주)하림의 이종길 이사의 12명이 참석하였는데 주관사인 해마로 측에서 회사 소개와 육계사육 성적분석에 대한 발표가 있는 후, 수의과학연구소 김재홍 연구관이 1일령 ND분무백신 요령에 대하여 세미나를 실시했으며 사육수수료 문제를 각 회사별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토의하였다.

특히 해마로의 육계사육 성적분석에 대한 소개에서는 지난 3년간(94~96년)의 사육성적을 자세하게 발표하여 이날 참석한 회원사 담당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공통된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한편 세미나 시간에는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젯슬 예방주사 사업에 관련하여 1일령 ND분무백신 접종 요령에 대하여 진행되었는데 1일령 ND분무백신 접종에서는 분무기의 선택이 중요하며 주변 환경 및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고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계 노계 도태 사업에 관하여 각 사별로 96년 입식현황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다음 2차 회의를 미원마니커(주)에서 주관하여 개최기로 하였다.

본회 회원사 종계노계도태 활발

본회에서 97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계노계도태 사업이 회원사들의 협조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현재 총 4건으로 5만2천수가 본회 정회원(가금처리분과)에 의해 처리되었다.

지난 1월에는 미원마니커(주)에서 9천수, (주)하림에서 1만8천수를 도태 시켰고 2월에는 (주)하림에서 2만5천수를 각각 본회를 통해 처리 하였다.

현재 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계노계도태 사업은 중간 알선업자에 의해 종계노계를 도태할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강제환우시켜서 다른 종계장에 넘겨서 생산에 가담케 함으로써 생산 잠재력파악에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질병에 대한 무방비상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창구를 일원화 함으로써 이런 부작용을 예방해 보자는 차원이며, 또한 중간 알선업자가 챙기던 알선수수료를 협회를 통합으로 해서 알선수수료의 일부를 협회재원으로 확보하여 전량 회원사들의 협찬으로 운영되던 것을 협회의 자립도를 높여 좀더 능동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위함이다.

한편 96년말 기준으로 회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계는 1백 50만수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97년에는 약 2백만수에 이를 전망이다.

그중 (주)하림이 약 40%, 미원마니커(주)가 약 20%를 보유하고 있다.

본회 영업책임자 회의 개최

지난 2월 25일과 3월 4일 두차례에 걸쳐 본회 회의실에서 회원사 영업책임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고시되고 있는 생계시세에 대하여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닭고기 시장에서 계열주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유통상인에 의해 시세가 좌우되어 닭고기 유통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하고 앞으로 올바른 유통단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동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물량이 처질 때 발생하는 텅핑을 막기위해 회원사간에 서로 필요한 물량에 대해 우선 협조하기로 하는 한편, 불법으로 무자료 거래를 하는 임도계 업체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여 문란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로 하였다.

모임과 관련한 사항으로는 앞으로 영업책임자 회의를 매월 개최하되 세 번째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기로 하였다.

깨끗하고
신선한 닭고기-



MIWON 미원마니커주식회사

신선하고 깨끗한

HAIMARROW

해마로치킨

Chicken



(주)TS해마로식품

TS HAIMARROW FOODS Co., Ltd.

본회 정기총회 개최

- 미원마니커 박준규사장 부회장에 선출 -

지난 2월 18일 본회 회의실에서 정회원 및 준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97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97년도 회비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회원사의 대표이사 변경으로 결원된 본회 임원에 대해 부회장에 미원마니커(주) 박준규 대표를, 이사에 (주)TS해마로식품 장덕진 대표를 각각 선출하였으며 오봉국님, 김강식님, 박근식님, 최준구님에 대한 고문추대를 추진하였다.

또한 97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지었는데 먼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사업으로 현행 불합리한 제도 자료를 수집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건의하는 것을 2/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하였다.

닭고기 소비 촉진 홍보 사업으로는 먼저 닭고기 요리대회 및 소비자 세미나를 2/4분기 부터 4/4분기까지 실시하는데 지방대회를 5회 전국대회를 1회 개최하기로 하였고 기자 및 소비자 초청 세미나는 한방, 순환기 학회 등과 연계하여 실시키로 하였다.

양계박람회는 6월에 대한양계협회와 공동주최로 실시키로 하였고, 일간지·전문지·잡지기자 등 기자단 워크숍을 1/4분기중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여학교 닭고기 조리실습 지원, 소비자 및 생산자 교육을 실시하며 신문 잡지·라디오·TV

등을 통한 광고를 연중으로 실시한다.

교육훈련 사업으로는 4월중에 농림부와 USFGC 후원으로 전국 도계검사원, 도계장 경영자 및 관계 직원, 관계공무원 5백여명에게 도계위생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며, 9월중에는 ASA 후원으로 도계장 현장책임자, 가공기술자, QC담당자들에게 닭고기 가공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한다.

외부 용역사업으로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닭고기 영양가 분석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다.

한편 96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닭고기 가공수율향상에 대한 연구는 금년 상반기까지 계속 실시한다.

정보교환 사업으로는 먼저 계육산업뉴스 발간, 각 분과별 위원회 개최, 회원사 생산·영업·경리 책임자회의 및 교육, 국내외 관련 정보수집, 육계 및 위생닭고기 시세 조사를 연중으로 계속 실시한다.

끝으로 협회 수익사업으로 회원사의 업무를 대행하는데 먼저 회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계에 대하여 강제 환우 차단을 위한 종계노계도태 알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그외에 회원사에서 사용하는 백신, 포장재, 기타 소비재를 공동

구매하며 각 회원사는 기존에 사용하던것 보다 비용면에서 더 저렴하게 구입하며 공급자측에는 영업비를 줄이는 등 업계 관련사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알선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협회수익사업을 통하여 지금까지는 전적으로 회원사의 회비 협찬에 의해 운영되던 것을 앞으로는 자립도를 높여나가고 보다 발전적으로 업계를 이끌어 가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본회 회원가입 꾸준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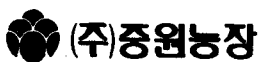
올해들어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정회원(가금처리분과위원)으로 유성브로이라(주) (대표:유호원), 준회원으로 동남농원(대표:윤용구), 대전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대표:윤지병)가 새롭게 가입되었다.

이로써 3월 8일 현재 본회 회원 현황은 정회원 26개사(통합경영분과위원 12개사, 가금처리분과위원 14개사), 준회원은 42개사, 특별회원은 24개사로 총 회원수는 92개사로 집계되었다.

현재 계육업계에서 본회의 위상이 점차 높아가므로 인해 앞으로 본회 회원가입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에 이 비 안

대한양계협회 능력검정 '94, '95, '96 3년 연속 1위!
에이비안은 육계농장 계열주체 에 더 많은 이익을 드립니다.



영업부 TEL.(0417)567-7792, FAX.(0417)554-0771

STORK® 세계 최대 최고의 Meat Group

- STORK PMT 도계설비 (Nu-Tech 내장적출)
- STORK Rendering 부산물 처리
- STORK Protecon 육가공 설비
- STORK Titan 식품가공 설비
- STORK Aqua 오, 폐수 처리



한국내 총대리점
(주)유경축산

Tel (0357)31-6073
Fax (0357)31-9353